

저축 어록 #129

채운 적은 별로 없으면서
가득하기를 바라면 어찌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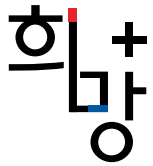
-통장-





표지모델_ 2020 공채 신입사원 김주호(여의도지점), 이영서(리테일영업1부).

SBI저축은행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지혜와 열정 가득한 신입사원을 대표해 김주호-이영서 사원이 표지모델로 나섰다.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된 사진 촬영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지친 기색없이 다양한 표정과 포즈로 이번 호의 커버스토리를 완성시켰다. 신입사원 다운 발랄함과 패기로 중무장한 2020 공채 신입사원들을 만나보자.



SBI저축은행 매거진
Spring 2020 Vol.25

발행일_ 2020년 4월 3일

발행인_ 정진문, 임진구

발행처_ SBI저축은행 홍보부

담당_ 유형근 주임(02-3416-4210)

주소_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센터원빌딩 동관 9층

기획_디자인_ 디스토리

웹진_ sbiwebzine.co.kr

SBI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330(2020.04.01.0)

Spring 2020 Vol.25

CONTENTS

Life+

04 Cover Story
신입사원 소개

10 달콤한 나의 가족
오성훈 과장 가족의 '패러글라이딩' 도전

16 부서 탐방
인프라서비스부

20 인생 레시피
뉴트로 핫플레이스 중림동 골목

24 SBI pick's
봄날의 감성과 설렘을 담은 인생영화, <건축학 개론>

News+

26 재테크 칼럼
성선화 기자의 부동산 재테크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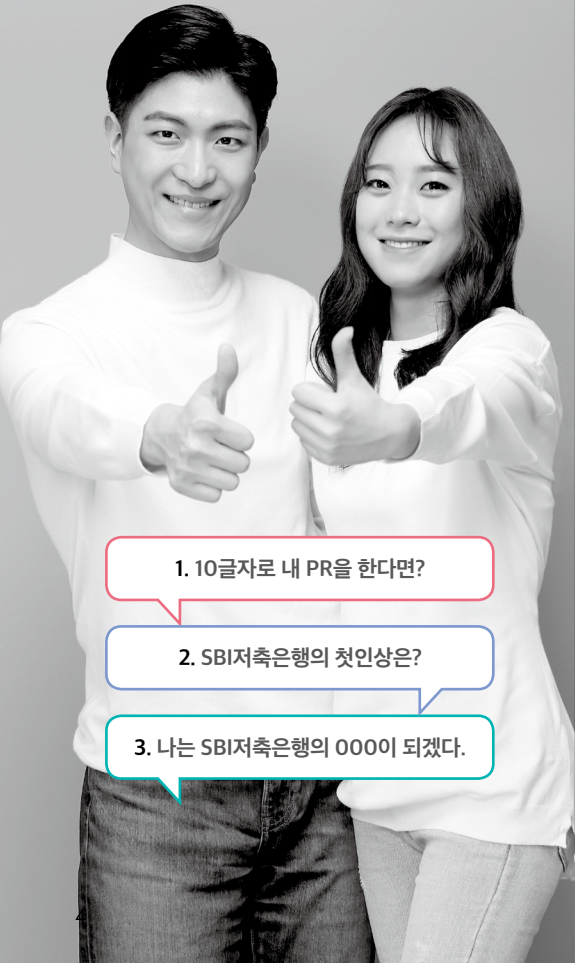
30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기업금융2부 김귀현 과장 외 4명

32 SBI 희망뉴스
2020년 1분기 주요소식

34 열린 편집실
편집후기 / 다른그림 찾기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갈, 우리는 2020신입사원입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SBI에 새롭게 첫발을 내디딘
2020 공채 신입사원들을 소개합니다.
각 부서의 힘찬 에너지가 되어
SBI저축은행의 밝은 미래가 되어줄 55명의
공채 신입사원들이 말하는
소감과 포부를 들어봤다.



1. 10글자로 내 PR을 한다면?

2. SBI저축은행의 첫인상은?

3. 나는 SBI저축은행의 000이 되겠다.



강동규 분당지점

1. 사서 고생하는 열정맨
2. 친절할 선배님들 덕분에 '일하고 싶은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함께 하고 싶은 SBI인'이 되겠습니다. 태도와 역량 모두 갖추어 인정받겠습니다!



김승훈 정보보호부

1. 제 이름은 승훈 신입이죠
2. 면접이 끝난 뒤, 로비에서 들리던 피아노 소리에 집으로 가기도 좋은 인상으로 기억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스마트폰 같은 사원'이 되겠습니다. 없으면 불안하고, 다재다능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폰 같은 사원이 되겠습니다.



김주원 분당지점

1. 분당지점 차기 애이스
2. 채용과정에서 대전지점을 처음 방문했을 때, 여신 담당자님께서 너무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해주셔서 좋은 새내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사나이'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사나이다운 영업력을 갖추겠습니다!



김진우 IB3부

1. 웃는거 하나는 자신있어.
2. 종종 오전 일지모에 위치해서 친근한 인상이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웃음 배달원'이 되겠습니다. 웃음으로 복이 온다고 하는데, 웃음으로 사내 분위기를 즐겁게 만드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사잇돌
#웃음 배달원
#신호등
#성실한 막내
#디퓨저
#스케치북
#사이다
#신용맨



박준형 수원지점

1. 모두에게 기억되는 사람
2. 지점에서 고객님을 대하는 모습을 접하고 따뜻한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권순재 SI2부

1. 인사성 좋고 예의 바르다.
2. 부서원들간의 친밀도가 좋아보였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열정맨'이 되겠습니다. 배움에 있어서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습득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SBI인
#열정맨
#비트코인
#허리
#스마트폰
#사나이
#마스코트
#테이프



김주호 여의도지점

1. 외모는 시크 성격은 개그맨
2. catch me if you can, 1등의 자부심. 너무 좋은 선배님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마스코트'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통해 SBI저축은행의 좋은 이미지만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 재무경리부

1. 조용하지만 편안한 사람
2. 청계천에 놀러왔을 때 한번 이 건물을 보았는데, 건물이 상당히 커서 '저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성실한 막내'가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오고,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열심히 움직이겠습니다.



박권수 CSS부

1. 운동은 好, 호기심 多 신인
2. 예금주로 첫 거래를 했던 SBI저축은행 지점은 밝고 환한 분위기였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디퓨저'가 되겠습니다. 항상 활기로 모든 직원에게 은은하게 다가갈 기본 좋게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박진현 리테일클렉션을부

1. 긍정과 열정을 품은 사람
2. 면접 당시, 본사를 보고서 1등 저축은행으로서 품격과 위엄을 느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스케치북'이 되겠습니다. 고객, 동료, 부서 업무 등 모두를 스케치북에 담아내어 SBI저축은행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동하 HR지원부

1. 만나보고 대화하면 진국
2. 금융회사의 차가운 이미지와 다르게 직원분들의 따뜻함과 활동력이 느껴졌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비트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낮게 평가되지만 언젠가는 크게 오를 것입니다.



김현전 SI1부

1. 운동과 음악을 좋아하는
2. 업계 1위로 해당 업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허리'가 되겠습니다. SBI저축은행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김진기 부동산여성심사부

1. 외모와 다른 스포츠맨
2. 면접부터 입사까지 신임을 위하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테이프' 같은 사원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부서, 업무에 있어도 맡겨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활짝 달라붙어 해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남성현 리스크관리부

1. 남들보다 성실하며 헌신적
2. 로비에서 들리는 피아노 소리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사잇돌'이 되겠습니다. 베테랑 선배님들 사이에서 경험을 쌓고, 더 나아가 SBI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박성진 대구지점

1. 책임감 투철한 공돌이 푸
2. 전형 간 친절하고, 섬세하신 직원분들을 보면서 1등 저축은행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사이다'가 되겠습니다. 실력을 키워 고객들의 답변을 시원하게 날려줄 수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서정민 CSS부

1. SBI임원이 될 인재
2. 업계 1등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회사였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신용맨'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믿고 맡길만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성윤아 사이드뱅크부

1. 성실하게 한결같은 사람
2. 친절했던 면접장과 좋은 시설, 훌륭한 업무환경을 가진 회사라고 느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돌솥'이 되겠습니다. 쉽게 식지 않고 오랫동안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준엽 리테일영업2부

1. 같은 잔잔 리테일을 통한
2. 각 사업부의 프로페셔널한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이 회사의 일원이 되고싶다 생각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아메리카노'가 되겠습니다. 모두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찾으며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센스있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금
#자양강장제
#과일
#런닝맨
#스마트폰
#빨간색
#빛나는
신입사원
#손난로



이다경 IB1부

1. 슬독박이 빠른 사원
2. 멋있고 깔끔한 센터원 빌딩 속에서 모두가 '프로'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3. SBI저축은행의 '과일'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익는 과일처럼 성장하겠습니다.



이진욱 잠실지점

1.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인
2. 친절과 배려가 넘치는 면접장. 첫눈에 반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손난로'가 되겠습니다. 따뜻함으로 고객과 동료의 마음을 녹이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정신우 IT개발부

1. 진하고 달달한 순수청년
2. 화사하고 아름다운 빌딩 내부의 모습, 밝고 인상적이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하회탈'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이고 웃으면서 일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정찬우 삼성지점

1. 냉철한 머리, 따뜻한 가슴
2. 면접대기를 하며 내려다본 청계천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지침서'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업무규정 숙지 및 활동을 통해 거침없이 성과창출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지영환 의도지점

1. 차가운 생각 따뜻한 마음
2. 신뢰의 파란색 글자와 열정의 빨간 지붕, 태극 마크를 연상시키는 멋진 로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해오름 햇살'이 되겠습니다. 서민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금융인이 되겠습니다.



승명진 전주지점

1. 배움에 열정 넘치는 사람
2. 입사서류 넣었을 당시 방문한 SBI저축은행은 시종은행만큼 크고, 분위기 또한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센스쟁이'가 되겠습니다. 일과 인간관계 등 모든 면에 있어 센스가 돋보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원종민 IT개발부

1. 먼저 다가가는 신입사원
2. 사원증을 걸친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보고 경이감을 느꼈습니다. 나도 곧 함께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대나무'가 되겠습니다. 천천히 자라다 괘목상대한 성장을 이루는 대나무처럼, 차근차근 업무를 배워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윤예현 소호영업1부

1. 바르고 따뜻한 가진 인(人)
2. 본사 빌딩이 멋졌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금'이 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녹슬지 않는 금처럼 초심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시형 대전지점

1. 누구보다 일찍 오는 신입
2. 편안한 분위기와 자율적인 책임제로 시행되는 연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타 지점들과 이의 부서에도 모두 알아보는 유능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한음 전략기획부

1. 적응력이 뛰어난 끝판왕
2. 을지로역에서 가까운 세련된 건물과 로비에서 흘러나오는 편안한 클래식 음악이 너무 좋았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선배님들과 항상 함께 하고, 일 잘하는 스마트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회탈
#지침서
#박지성
#단단한 땅
#단비
#인프라서비스
#해오름
햇살
#사이다



조규상 인천지점

1. 총성! SBI 내가 지킨다!
2. 신뢰를 기반으로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건강한 은행
3. 저는 SBI저축은행의 '박지성'이 되겠습니다. 박지성 선수처럼 성실함을 바탕으로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겠습니다.



최성환 IT개발부

1. 배우려고 노력하는 태도
2. 왜 이렇게 좋아?! 무조건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단비'가 되겠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되는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돌솥
#센스쟁이
#아메리카노
#대나무
#느낌표



유영수 IB2부

1. 위유내강의 묵직한 신입
2. 차분하지만 친절함 면접장. 스마트한 인상이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느낌표'가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해결해 나가며 느낌표를 보여드리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이관영 리테일영업3부

1. 보기와 달리 매우 착해요
2. 업계 1위의 자부심과 함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자양강장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업무를 맡아도 선배분들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자양강장제 같은 SBI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종석 잠실지점

1. 열심히 배워 잘하는 사원
2. 전문성과 따뜻함을 갖춘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런닝맨'이 되겠습니다. SBI저축은행과 저의 성장을 위해, 실무에서 직접 발로 뛰고 경험하며, 여신 전문가로 성장하겠습니다.



임빛나 금융소비자보호부

1. 반짝반짝 빛나는 임빛나
2.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선배님들과 쾌적한 업무환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빛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밝은 미소와 꿈같은 업무처리를 통해 SBI저축은행의 빛이 될 수 있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정재민 재무경리부

1.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2. 센터원 빌딩의 깔끔한 로비와 스마트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보며, 엘리트 금융사라는 느낌이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단단한 땅'이 되겠습니다. 고객, 동료를 믿어주셔서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조승준 경영관리부

1. 적재적소의 맞춤형 신입
2.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영화에서만 보던 본사 건물, 역시 업계 1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인프라서비스 부서'가 되겠습니다. 부서원들이 저의 고객이라 생각하고 바쁠 때 하지 못하는 일을 함께할 수 있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최우정 핀테크지원실

1. 사람과 우정 중에 난 우정
2. 센터원 빌딩에 들어서며 저도 이곳으로 출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사이다'가 되겠습니다.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일을 처리하고 청량한 에너지로 팀에 시너지를 만드는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개업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
#긍정의 일꾼
#기준
#분위기 메이커
#사랑받는 신입



추리아 기업어신심사부
1. 밝고 잘 웃는 신입사원
2. 을지로 입구역과 가까운 위치와 높고 세련된 건물이 좋았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개업'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아직 작은 존재이지만 '개업'같이 꿈꾸게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허아론 부동산금융1부
1. 꾸준하고 성실한 에이스
2. 전망 좋은 면점장과 지원자를 배려해주는 면점관들. 따뜻하고 근무하고 싶은 인상이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관계자들에게도 직장생활에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두호 삼성지점
1.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
2. 1등 저축은행이라는 자부심, 미래 비전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이 되었습니다. 선배님들뿐만 아니라 동료, 고객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열심히 넘어 잘하는 사원이 되었습니다.



허창인 소호영업2부
1. 신뢰할 수 있는 사람
2. 아! 이곳이 바로 회사구나!
3. 저는 SBI저축은행의 '긍정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일하겠습니다.

#사원증
#햇빛
#나무
#꽃씨
#활력소
#사과



홍정화 IT개발부
1. 방긋 잘 웃는 성실한 신입
2. 웅장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분사, 꼭 가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화기애애한 업무 분위기를 이끌어 동료, 선배님들과 시너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황준영 리테일영업2부
1. 꾸준하게 성장하는 사람
2. 연수, 면접 중에 (화장실 갈 때/생략) 묵묵히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고 다소 차가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사랑받는 신입'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이 회사생활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받아들이고 매사에 겸손히, 열심히 하는 사원이 되었습니다.



강소연 홍보부
1. 어디서나 밝을 소 빛날 연
2. 은행을 구하는 은행, 은행 저축 프로젝트 보고 SBI저축은행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햇빛'이 되었습니다. 제 이름과 같이 SBI저축은행을 밝게 비추겠습니다.



권지민 리테일영업2부
1. 엑스 오세훈 판박이 지민
2. 면접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 애써 주시는 모습을 보고, 따뜻한 곳이라고 느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성실하게 노력하며 성장하겠습니다.



김민지 리테일영업3부
1. 열정자로는 부족한 매력
2. 서울B부산인천에서 자리왔는데, 앞으로는 SBI에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사원증'이 되었습니다. 사원증처럼 SBI 동료들과 함께하며 회사의 명예를 빛내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김연수 감사실
1. 방긋방긋 웃는 미소공주
2. 크고 좋은 건물, 업계 1위, 입사하고 싶다.
3. 저는 SBI저축은행만의 '꽃씨'가 되었습니다. 저만이 가진 여러가지의 꽃씨로 예쁜 꽃을 피워내 SBI저축은행과 따스한 봄을 맞고 싶습니다!



김하린 부동산금융1부
1. 뽀로로와 맞먹는 에너지
2. 반짝반짝 빛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SBI의 사람들을 보며 저 또한 목에는 사원증을, 손에는 커피를 든 채로 같이 걸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항상 활기찬 에너지로 팀내 분위기를 돋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현애 리테일콜렉션부
1. 알아갈수록 반전의 반전
2. 다른 사람들이 보면 감탄할 만한 건물과 직원분들의 친절함에 꼭 입사하고 싶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사과'가 되었습니다. 신입사원의 풋풋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남가은 여신지원부
1. 언제나 긍정에너지 뽀뽀
2. SBI저축은행의 로고처럼 친근하지만 중압감이 느껴져서 신뢰가 갔고, 혁신적인 열정이 넘쳐보였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웃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장점인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 사람 모두에게 웃음의 나비효과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류연선 채널2부
1. 잘 웃고 긍정적인 류시원
2.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면접장에서 SBI저축은행 '양' 하며 시과 먹는 모습을 자기소개로 준비했는데, 이 모습을 보신 면접관님들이 따뜻한 미소로 웃어주셨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달리기 선수'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제 자신을 채찍질하며 멀리 뛰어나겠습니다.



박소영 채널1부
1. 에스비에어 삼골 비터민
2. 센터원 건물 너무 좋아서 꼭 여기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막내로서 팀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겠습니다.



박혜슬 인프라서비스부
1. 혜슬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2. SBI 모든 직원분들께 따뜻함을 느꼈고 앞으로 저도 회사생활을 하면서 따뜻함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KTX'가 되었습니다. 빠르게 업무를 습득하여 SBI에 도움이 되는 사원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달리기 선수
#웃음 전도사
#분위기 메이커
#KTX
#도라에몽
#장인
#간판
#바위



소희진 채권관리부
1. 희망을 드리는 미소 요정
2. 1등 저축은행이라는 점이 애사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도라에몽'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윤다정 소호영업3부
1. 윤다정 꽃꽂이 20살임
2. 센터원 건물이 너무 좋아서 하루 빨리 사원증을 매고 출근하고 싶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업무를 빠르게 습득하여 금융 장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소영 IB1부
1. 무엇이트지 열심히 하는
2. 따뜻한 눈길에 가득한 면접장, 편한 느낌이었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바위'가 되었습니다. 큰 비위처럼 강인하고 단단한 사원이 되었습니다.



이영서 리테일영업1부
1. 블라인드가 불리한 스물
2. 멋있다! 화려한 울지로 본사에 출근하는 회사원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3. 저는 SBI저축은행의 '간판'이 되었습니다. 멀리서도 회사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간판처럼, SBI의 간판이 되어 더욱 자사를 빛내겠습니다.

어릴 적 동화책에서 만난 빛자루 탄 마녀와 마법의 양탄자를 탄 알라딘이 하늘을 날아다닐 때, 누구나 한 번쯤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상상해보지 않았을까. 그 상상 속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껴보고자 분당지점 오성훈 과장과 그의 가족들이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했다.

분당지점 오성훈 과장 가족의
'패러글라이딩' 도전,

“하늘을 나는 기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짜릿함!”



생각만 해도 짜릿한 _____ ‘하늘을 나는 일’

예정된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앞두고, 전날까지 수도권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 누군가는 이 날씨에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하는 건, ‘리정혁 동무’를 만나기 위함이 아니냐고 우스갯소리를 했다. 드라마처럼 리정혁 동무를 만나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행히도 분당지점 오성훈 과장과 그의 가족들이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패러글라이딩장에 도착한 3월20일에는 강풍은 잦아들고, 술술 부는 따스한 봄바람이 이들을 맞았다.

하지만 하늘을 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바람은 거세지 않았지만, 바람의 방향이 반대라 오전에는 하염없이 기다리다 결국 점심식사 후 다시 만났다. 당초 오성훈 과장과 아들 오하린(10세) 군이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하기로 했지만, 오랜 기다림이 설렘으로 바뀔걸까. 딸 오유림(8세) 양도 용기를 내 함께 도전하겠다고 결심했다. 부인 유수진 씨는 가족들의 사진을 담당하기로 했다.

“패러글라이딩과 스카이다이빙은 버킷리스트에 간직해왔던 일이죠.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빠인 제가 먼저 용기를 내면 아이들도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어요. 평소 놀이기구도 잘 타고, 액티비티한 활동을 좋아하거든요.”(오성훈 과장)





“하늘에서 바라본 풍경, _____ 가슴 몽글한 체험”

오성훈 과장과 가족들은 패러글라이딩 하기 위해 산 정상까지 픽업트럭을 타고 이동했다. 이동하는 동안 안전교육동영상 시청은 필수다. 산 정상에 도착해서도 간단한 안전교육이 진행됐고, 강사들은 장비 착용 및 마지막 점검을 하며 바람을 살폈다. 첫 도전자는 의외로 가장 마지막에 도전을 결심한 오유림 양.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한 번에 뛰어 하늘 위로 날아올랐다. 뒤이어 오성훈 과장과 아들 오하린 군도 패러글라이딩 도전에 성공했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무섭지도 않았고요. 도전하지 않았다면 후회할 뻔 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오고 싶어요.” 오유림 양은 첫 패러글라이딩 도전에 대해 “비행기는 자동차가 뜨는 느낌이라면, 패러글라이딩은 내 몸이 하늘을 나는 아주 시원한 느낌”이라고 어린 아이다운 소감을 전했다. 이어 오하린 군은 “막상 출발할 때는 비행기보다 무섭지만, 하늘에 뜬 뒤에는 무섭지 않았다. 하늘에서 저 멀리 마을을 내려다보니 기분이 좋았다”며 “아직 못해본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오늘은 일기를 꼭 써야겠다”고 뿌듯한 마음을 전했다.

체험장소: 용인 송골매 패러글라이딩

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306-1

예약: 010-5300-0550 / songgolmae.co.kr

요금: 주말: 90,000원 / 평일: 80,000원

송골매 패러글라이딩에서는 2인승 체험으로 일반인도 안전하게 패러글라이딩을 즐길 수 있고, 전문 패러글라이딩 파일럿 레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 19'로 인해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SBI저축은행도 예외가 아니다.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 19'의 특성상 SBI저축은행 모든 임직원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더 나아가 내방 고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러한 임직원들의 건강과 고객의 안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인프라서비스부를 만났다.



인프라서비스부

SBI저축은행의 든든한 동반자! 전사 핵심 인프라를 지원하는 다재다능한 일꾼들

SBI저축은행의 '주춧돌'

인프라서비스부는 SBI저축은행의 '주춧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사 계약 관리, 사회공헌활동, 행사, 임대차, 시설, 보안, 문서, 각종 보험, 임직원 건강관리, 차량, 회원권, 복리후생, 인장, 자산, 등기, 경조사 관리 등 매우 다양한 전사 핵심 인프라를 지원한다. 회사가 이룬 이익의 일부를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건실한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인프라가 바로 서야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듯 인프라서비스부는 가장 기초가 되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다.

"SBI저축은행을 거대한 로봇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로봇의 연료를 공급하고, 고장난 부분을 보수-개선하며 모든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바로 인프라서비스부입니다. 인프라서비스부가 없는 SBI저축은행은 연료 경고등이 켜진 채 주행하는 자동차와 같지 않을까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임직원과 고객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저희 부서의 최대 이슈이자 목표입니다. 위기대응TFT의 일원으로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희 부서원 모두에게 아낌없는 응원 부탁드립니다."(김희상차장)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

SBI저축은행의 가장 기초, 기본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인프라서비스부는 업무에 있어서 '기본'을 가장 중요시한다. 부서장인 이용구 부장은 "아무리 크고 멋진 것이라 해도 기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일 뿐"이라며 "부서원들에게 우리가 회사와 임직원들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잊지말자고 늘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 "업무 특성상 안전사고와 직결되어 있는 업무가 상당한데, '기본'을 강조하는 부서가 안전사고로 인해 금이 가게 되면 그만큼 회사에 발생하는 데미지가 클 것이기에 더욱더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또 강조한다"고 전했다.

인프라서비스부 특성상 육중한 업무가 잦아 부서원들이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용구 부장을 중심으로 모든 부서원들은 즐겁고 캐주얼한 분위기 속에 활발하게 소통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 "이용구 부장님은 모든 음식이 다 맛있다고 하는 상당한 미식가(?)입니다. 덕분에 저희는 소소한 맛집 탐방을 자주합니다. 회식이 끝나면 각자의 소중한 가족들을 위한 디저트까지 챙겨주시는 세심함까지...인프라서비스부 정말 최고 아닌가요?"(김원준 대리)



Talk! Talk!

우리 부서 식구를 소개합니다.

- 1. 박혜슬 사원**
 따뜻한 새내기! 센터원 9층에 '엄~청 키 크신 분'하면 바로 박사원입니다. 긍정적인 순수한 마음을 담아 항상 활짝 웃는 모습으로 부서를 포함한 모두에게 미소 바이러스를 전파합니다. 빠르게 적응하고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 아주 칭찬해~!
- 2. 조철범 대리**
 SBi미디어의 손! 조대리는 전사 임대차, 시설/자산 관리,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 및 임직원들이 시설/설비 등의 문제로 긴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슈퍼맨 조대리를 찾습니다. 그만큼 조대리에 대한 임직원들의 신뢰가 두둑하다고 볼 수 있겠죠?
- 3. 이용구 부장**
 캠퍼! 부서원들에 대한 배려심이 많고, 업무 수행이나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 늘 이타적인 모습으로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동, 일, 사람, 무엇이든 열정으로 이겨내는 해결사 바다 같은 성품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상남자'입니다.
- 4. 김희상 차장**
 든든한 터줏대감! 전사 구매 계약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남(?)으로 익히 알려져 있으며, 풋살 동호회 'FC SBi'의 주전 골키퍼로써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습적인 슛도, 회사의 계약 건도 모두 김희상 차장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 5. 박보임 대리**
 비서실의 어르신! 임진구 사장님과과의 찰떡호흡으로 8년 동안 함께하고 있는 비서실의 박보임 대리입니다. 항상 부서원들을 챙겨주고 지원해준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다리 부상으로 고생이 많은데, 임직원 여러분들 그녀의 걸음이 조금 느리더라도 이해해주세요...~
- 6. 이영환 주임**
 보험, 차량, 동산 및 집기 등의 업무는 이영환 주임에게 문의해주세요. 이영환 주임은 슴슴하고 느긋한 성격의 소유자로 임직원들에게 인기가 최고입니다. 이제 갓 돌 지난 아들을 둔 '아들바보'이기도 한 이영환 주임은 회사에서도 최고, 가정에서도 최고!
- 7. 문보라 사원**
 친절보스! 항상 웃으면서 고객과 직원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안내데스크의 문보라 사원입니다. 프론퍼서빌함은 물론, 밝은 미소로도 유명한 안내데스크의 간판! 늘 친절할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 8. 김원준 대리**
 행사하면 김대리! 회사의 CSR과 각종 행사, 전사 문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품질남 대열에 합류! 솔로일 때 즐겼던 여행, 싸이클 등의 취미생활은 모두 접었지만, 신혼의 달달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Bi의 최고 동안 외모이지 않을까요?
- 9. 김예은 사원**
 비서실을 밝히는 따뜻한 '불햇살' 같은 김예은 사원입니다. 넓은 마음과 따뜻한 미소로 임직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참, 김예은 사원은 지금, 아주 잠시 솔로랍니다. 혼남 직원 여러분들! 이 짧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 10. 고재영 사원**
 미소가 아름다운 안내데스크의 고재영 사원입니다.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내방 고객 및 임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때론 부처님처럼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 웃어넘기는 초긍정적 성격의 소유자!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이름을 따온 망원동 망리단길, 송파구 송리단길에 이어 중림동 골목이 '중리단길'이라는 이름으로 젊은 세대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뉴트로 열풍이 가져온 중림동의 변화! 전통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중림동 골목은 어떤 모습일까.

뉴트로 핫플레이스 중림동 골목



- 1 버거우너서들 햄버거
- 2 중림장설렁탕 설렁탕
- 3 닭갈비조집 닭요리
- 4 호수집 닭요리
- 5 도마 한식
- 6 삼공식당 곶창, 막창
- 7 두통 육류
- 8 우진갈비 육류
- 9 산참찰물침침 요리주점
- 10 유즈라멘 일본라면
- 11 현상소 디저트 카페
- 12 국민회관 육류
- 13 서울부띠끄 양식
- 14 공일부엌 한식
- 15 VERY STREET KITCHEN 퓨전
- 16 만리재 비스트로 양식
- 17 오헤어22 BAR
- 18 더하우스1932 디저트 카페



‘서울로 7017’에서 내려다본 중리단길

서울역 고가도로를 공중정원으로 탈바꿈한 ‘서울로 7017’은 인근의 퇴계로, 남대문시장, 승례문, 한양도성, 만리동, 중림동 등의 각종 명소를 연결된다. ‘서울로 7017’을 산책하다가 중림동 이정표를 따라 내려오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화려한 고층건물들과 정겨움이 느껴지는 골목이 마주보고 있는데, 이곳이 바로 최근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중리단길’이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중림동에 자리잡고 있던 빛 바랜 간판들 사이로 화려하고 독특한 식당과 카페가 곳곳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풍경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리단길은 젊은 세대는 물론, 남녀노소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옛 모습을 간직한 채 이 골목을 지키고 있는 오래된 맛집은 물론, 새롭게 등장한 가게들이 중림동 골목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특히, ‘서울로 7017’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중림동 골목은 주중-주말 할 것 없이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가 됐다. 닭꼬치로 유명한 ‘호수집’, 설렁탕집 ‘중림장’, 양식당 ‘서울부띠끄’, 마라탕이 유명한 ‘중림동기내식’, 한식 레스토랑 ‘공일부엌’, 일제시대 적산가옥을 카페로 만든 ‘더하우스1932’, 낭만적인 카페 ‘현상소’, 퓨전레스토랑 ‘베리스트릿킪친’ 등이 중리단길의 대표 맛집들이다.



중리단길에서 만나는 역사적인 공간

중림동 골목에는 오랜 시간 이 곳을 지켜온 역사적인 공간들도 자리잡고 있다. 가파른 언덕을 따라 올라가면 빨간 벽돌로 지어진 아름다운 성당을 만날 수 있는데, 이 곳이 바로 1893년 완공돼 12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약현성당이다. 약현성당은 조선 최초의 서양식 성당으로, 이후 한국성당 건축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특히 이곳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한 이후 더욱 유명해졌으며, 성당 내부의 성스러운 분위기와 외부의 고풍스러운 분위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지로도 자주 등장했다.

약현성당에서 내려다보면 서소문역사공원이 눈에 들어오는데,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공간이다. 조선시대에 '서소문 밖 네거리 처형지'였던 이곳은 수많은 천주교인이 순교한 곳으로, 국내 최대 천주교 성지이기도 하다. 지난해 6월에는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이 개관, 천주교 순교자의 추모 공간과 함께 전시와 문화 행사, 시민들의 쉼터로 개방하고 있다.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중림동 골목 곳곳을 돌아보며 맛집 탐방과 함께 지난 역사가 숨쉬는 공간들도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



공일부엌

중리단길에서 정갈한 한식 맛집을 찾는다면 노란색 외관이 눈에 띄는 '공일부엌'을 찾아가보자.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맛을 연구했다는 사장님의 노력 덕분에 남녀노소 모두의 입에 맞는 한식을 맛볼 수 있다. 최고의 맛을 선보이기 위해 신선한 식재료는 물론 식기까지 특별히 신경쓰는 사장님의 자부심은 이곳만의 특별한 메뉴들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국내산 냉장육만 사용해 천년초로 고아낸 수육은 백김치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깍두기 볶음밥에 대창을 더한 대창깍두기볶음밥과 비법 양념에 재워낸 소고기를 직화로 구운 불고기샐러드비빔밥도 별이다.



- 주소. 서울 중구 만리재로 209
- 전화. 02-313-7207
- 영업시간. 매일 AM 11:00 ~ PM 22:00 (평일 휴무)
- 대표메뉴. 천년수육(소 30,000원/대 40,000원), 대창깍두기볶음밥(9,000원), 불고기샐러드비빔밥(9,000원), 목은지김치찌침(9,000원)

THE HOUSE 1932

1932년 일제시대에 지어진 적산가옥을 카페로 재탄생시킨 공간이다. 140여 평의 3층 주택인 이곳은 일본인 인쇄소 사장의 사택과 미군정장관 겸 사단장의 사택으로 사용되었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등 오랜 세월을 거쳐 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주택은 이제 최고의 바리스타들이 정성들여 만들어낸 매력적인 커피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2층 다다미방과 지하 공간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과 테이블이 마련돼 있고, 과거 주택의 모습도 감상할 수 있다. 최고의 커피와 더불어 직접 만든 다양한 빵과 케익 등도 맛볼 수 있다.



- 주소. 서울 중구 만리재로35길 5
- 전화. 02-365-1932
- 영업시간. 매일 AM 11:00 ~ PM 22:00 / 일요일 AM 11:00 ~ PM 19:00
- 대표메뉴. 아메리카노(4,500원), 아인슈페너(6,000원), 1932 Blend(6,000원), 시그니처 티(7,500원), 딸기우유크림빵(4,800원), 몽블랑(5,200원), 앙버터치아바타(5,800원)

봄날의 감성과 설렘을 담은 인생영화

SBI 가족 여러분이 이번달 pick해 주신 봄날의 힐링 영화는 <건축학 개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봄날의 감성과 설렘엔 로맨스 영화가 단연 인기를 끄네요. 다른 후보군 영화들 중, 고단한 도시의 삶을 떠나 사계절의 자연 속에서 음식을 통해 힐링을 찾아가는 <리틀 포레스트>도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첫사랑이 아련히 떠오르는 <건축학 개론>에는 못미쳤네요. 따뜻한 봄날에 감성과 설렘을 담은 영화 한 편, 어떠세요?

누군가의 첫사랑 <건축학 개론>

유독 계절을 타는 영화다. 봄이 되면 아지랑이마냥 <건축학 개론>이 떠오른다. 이유가 뭘까? 2012년 3월 22일 완연한 봄에 개봉했고, 한국 멜로영화로는 400만 관객의 신기록을 냈기 때문에? 단지 본 사람이 많아서가 아닐 것이다. 아련한 봄과 <건축학 개론> 무척 닮아서다.

우선 수지가 예쁘다. <건축학 개론>하면 여주인공 '서연'이 먼저 떠오른다. 서연 역을 맡은 수지는 출연 당시 19세로 정말 풋풋했다. 수지만만이 아니라 영화 속에는 훈훈한 배우가 많았다. 첫사랑에 빠진 승민 역에 이제훈, 친구 납득이 조정석 그리고 서연과 승민의 성인 역할은 '엄태웅과 한가인'이다. 15년만에 서연(한가인)을 만난 승민(엄태웅)은 그녀를 단박에 기억하지 못한다.(왜 모를까 모르는 척이었다.) "나 모르세요?"

과거로 돌아간 첫 장면은 개강 첫째 날.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갬성'(감성) 돋는 이유는 현재와 대학 시절을 플래시백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때 절절했



던 첫사랑까지 담고 있다. <건축학 개론>은 영화 포스터의 카피로도 유명한데,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이다. 스무살, 대학, 신입생, 그리고 첫사랑. 이 뻘한 플롯을 건축학도인 감독이 <건축학 개론>으로 애뜻하게 그렸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애정을 갖고 기록하는 것이 건축학 개론의 시작"이라는 개론 수업 과제처럼 영화는 마음 속에 기록된 첫사랑을 꺼내 보는 매순간을 애정스럽게 담고 있다.

어떤 영화는 볼 때가 즐겁다. 극장 안에서 울거나, 무섭거나, 스틸 넘친다. 반면 어떤 영화는 곱씹을 때가 더 미소 짓게 만든다. <건축학 개론>은 후자다. 나에게 '수지' 같았던, '이제훈' 같은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고, 대학시절로 돌아가게끔 만든다. 다만 <건축학 개론>에 더 흠뻑 빠지려면, 첫사랑의 아픈 추억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더 아프게 헤어질 수록 영화의 감동은 배가 된다. 상투적이거나 반박할 수 없는 말, 첫사랑은 이뤄지지 않아서 더 아름답다고...

아무리 누군가에게 나의 첫사랑을 "쌍년"이라고 말하며, 강제로 퇴색시키더라도 첫사랑만큼 '찐사랑'은 만들 수는 없다. 그만큼 첫사랑의 추억은 강하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나만의 이야기니까. 유일하게 <건축학 개론>이 가진 영화적 환타지는 첫사랑이 '한가인'이 되어서 찐!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봄이 오면 생각나는 영화, 그보다는 덕분에 잠시 봄을 더 아련히 만끽할 수 있는 영화. 그래서 <건축학 개론>이 많은 이들에게 소환되었을 것이다.



건축학 개론 (Architecture 101, 2012)

관람객 ★★★★★ 9.50
네티즌 ★★★★★ 8.66
멜로/로맨스-118분-2012.03.22 개봉
감독 : 이응주
출연 : 엄태웅, 한가인, 이제훈, 수지, 조정석
<출처 : 네이버 영화>

SBI 한줄평

봄날의 풋풋한 느낌처럼 애뜻한 감정, 이게 바로 봄. 이 걸 봄. 이용호 과장 | 채널3부

지나간것은 지나간대로 나름 의미가 있다
이훈 대리 | 여신지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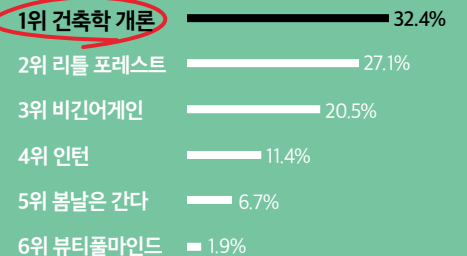
시작이기에 모자라고 모자라기에 그리운
원종민 사원 | IT개발부

소개팅녀와 보고, 각자 첫사랑 찾아간 영화
박은성 사원 | HR지원부

설렘과 타이밍에 깊은 여운이 남았던 영화
김승훈 사원 | 정보보호부

봄과 같은 첫사랑의 추억을 향수시킬 수 있는 영화
우리네 사원 | 강남지점

SBI
Pick's



1 내 돈 없이도 내 집 마련한다는 비. 밀.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값은 8억원대 중반입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 마다 아직까지 집 한 채 없는 서민들은 우울해집니다. 내 집 마련 의욕이 뚝뚝 떨어지죠. 평생 월급을 모아도 내 집 마련은 그림의 떡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실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직장인들의 말은 다릅니다. 그들은 '돈이 많아서' 집을 산 게 아니라고 합니다. 8억원 짜리 집을 산다면 현금 8억원을 모아야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의미죠.

내 집에 꼭 살아야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우리가 8억원 짜리 집을 살 때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현실성이 없는 방법은 대출 없이 현금으로 8억원을 주고 사는 겁니다. 하지만 수십억대 고연봉자나 부모가 금수저가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겁니다. 현재 9억원 이하는 40%까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3.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때 필요한 현금은 4.8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주는 것입니다. 8억원 짜리 집의 전세가격이 5억원이라고 할 때 필요한 현금은 3억원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 보다 필요한 현금이 줄어듭니다. 대신 실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저렴한 전세나 월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8억원 짜리 내 집 마련을 할 때 현금 8억원이 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막연한 두려움 보다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택 청약 당첨 확률 높이기!

내 집 마련의 또다른 방법은 새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는 거예요. 청약은 시장에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를 수요자들에게 분배하는 방법이에요. 새 아파트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점수를 매겨 공급해요. 청약 가점제는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새 아파트를 먼저 공급하기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가점제의 기준



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 가족 등이예요. 만점이 84점인데 높은 청약 점수를 받기가 쉽진 않아요.

하지만 청약 점수가 낮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가점제 이외에 추첨제로 하는 분양 단지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서울의 경우 85㎡를 기준으로 이하는 100% 가점제이지만, 그 이상은 물량의 50%가 추첨제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비조정지역의 경우 추첨제 물량이 70%에 달하기도 하죠.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먼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서울 보다는 입지가 좋은 수도권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들어 과천의 경우 택지개발지구인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 등 향후 공공 분양 물량이 많은 편이죠. 하지만 거주지가 서울인 사람이 과천에 청약을 하면 불리해요. 청약을 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우선 공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택 청약에서 거주민으로 인정 받으려면 1년 이상 살아야 해요. 분양 전에 미리 입지가 좋은 수도권 지역에 살면서 청약에 도전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월세받는 부동산의 함정

부동산 투자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시세차익과 둘째 현금 흐름 창출.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은 시세 차익보다 현금 흐름 창출에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따박 따박 월급처럼 월세를 받고 싶어하지만 가격 상승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월세도 받고 시세 차익도 내는 부동산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고가의 강남 아파트에 투자를 했다면 시세 차익이 20억원 가까이 날 수 있었겠지만, 그 아파트의 월세 수익률을 환산하면 1% 대로 낮습니다. 고가의 아파트일수록 월세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월세 부동산은 무조건 싸야한다!

월세를 받기 위한 부동산 투자는 무조건 싸게 매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금을 최소화해야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예요. 투자를 하기 전에 미리 매입가와 보증금, 월세를 정해 놓고 그 선에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선 서울 보다는 지방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방에 1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매입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받는다는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흔히 월세를 많이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월세 수준은 30~60만원 수준입니다. 이 이상의 월세는 연체 리스크도 크고 세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의 월세를 목표로 한다면 40만원 짜리 월세 3개가 차라리 낫습니다. 지방의 경우 한 개를 매입할 때 보다는 여러 채를 매입 전담 관리인에게 위임하는 방법도 흔히 쓰이고 있습니다.

월세 부동산은 무조건 초역세권

오르는 부동산을 결정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교통, 학군, 자연환경, 상권 등등 하지만 월세 부동산은 교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초역세권이여야 합니다. 월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빠른 이동입니다. 대체로 가족 단위보다는 싱글들이 월세를 살기 때문에 학군이나 자연환경 등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지하철 역이 좀 멀더라도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자신은 좀 걸더라도 어린 자녀의 학교는 바로 앞에 있었으면 하는 거죠.

월세를 주고 싶은 세입자를 미리 정하라!

미리 월세를 주려는 세입자를 염두해 둘 필요도 있습니다. 주변에 큰 병원이 있다든지, 대학교 근처라든지, 공항 근처라든지, 대기업이 있다든지.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올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 병원은 교대 근무가 많기 때문에 인근에 방을 구할 수밖에 없고, 대학생들도 대부분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합니다. 월세를 주고 싶은 직업군을 미리 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성선화 신문기자, 작가
경력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이데일리 금융부 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저서 6개월에 천만 원 모으기, 투자여왕, 재테크의 여왕, 100억 월급쟁이 부자들, 결혼보다 월세, 월세의 여왕 등

두근두근 설레는 봄, 웃음꽃 머금은 '심쿵 새 얼굴'

따스한 햇살과 살랑이는 바람, 향기로운 꽃내음이 가득한 봄, 봄처럼 포근하고 활기찬 미소를 가진 '심쿵유발' 새 얼굴들이 등장했다. 따스한 봄 햇살처럼 SBI저축은행의 따뜻하고 밝은 미래를 함께할 다섯 명의 경력직 신규 입사자를 소개한다.

1. SBI저축은행을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2.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3. 동료-선후배 직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4. SBI저축은행에 입사해서 가장 좋은점은?
5. 나의 가장 큰 매력은?
6. 올해 목표와 각오는?



김귀현 과장 | 기업금융2부

1. 저축은행을 뛰어넘는 은행
2. 신뢰성입니다. 특히 금융의 생명은 내-외부고객 모두에게 본인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직원분들에게 해피 바이러스가 되는 존재
4. 한국시리즈(지방저축은행)에서 메이저리그(당행)로 입성하여 다양한 선수(직원)와 구장(여신, 거래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5. 솔직 담백하고 정직하게 쿠울한 자
6. 여신을 계량화된 수치로 표현하겠습니다.



김소영 주임 | 사이다뱅크부

1. 업계 최초, 최고의 수식어를 다는 금융혁신을 이뤄낼 기업!
2.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면, 어떤 일이든 최선의 방법을 찾아 노력하게 되고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 어떤 특장분야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탐이다' 라고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4. 좋은 점들이 참 많지만, 요즘은 마스크 나눠주는 게 제일 좋아요. 떨어질만하면 주시니까, 가뭄에 단비 내리는 것처럼 기쁘네요.
5. 저는 다정다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6. 팀 내에서 저의 포지션을 잘 잡고, 동료들과의 팀웍도 맞춰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도승민 주임 | 소호영업2부

1. 저축은행 업계의 독보적인 선두주자
2. 상호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서로서로 믿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팀워크도 생기고,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예의 바른 사람',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기억에 남았으면 합니다.
4. 이전 직장 대비 많이 가까워져서 좋았습니다.
5. 꿈수부리지 않고, 앞에서든 뒤에서든 변함없는 사람.
6. 체중감량 다이어트와 저축하기입니다.



이혜원 주임 | 소호영업2부

1. 워라밸을 갖춘 선진화된 직장 문화를 형성한 회사.
2. Team work 라고 생각합니다.
3. 회사의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4. 직장 내 선후배들의 친절함입니다. 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님들과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후배님들 덕분에 빠른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5. 긍정적인 마인드.
6. 저축과 여행입니다!



맹원주 주임 | SI1부

1. SBI저축은행은 선구자다. 양질의 일이 나올 때 항상 먼저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량한 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다 갖췄다고 생각하여 선구자라고 생각합니다.
2. 배움과 성장입니다. 금융의 원재료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배움과 성장을 통해 좋은 원재료가 되고 싶습니다.
3.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4.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선배님들과 같이 생활하게 되어 자긍심은 물론, 잘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5. 긍정적인 에너지와 유머러스함. 주변 분위기를 항상 밝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6.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것입니다.



**SBI저축은행,
업계 사상 최초로
거래자 수 100만 돌파**



업계1위(자산기준, 2019.09 경영공시) SBI저축은행이 업계 사상 최초로 거래자 수 100만을 돌파했다. 1971년 회사 설립 이후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온 SBI저축은행은 자산, 순익, 거래자 수 등 고객 저변을 확대하며 저축은행업계에 서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 사이다뱅크 출범 이후 거래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으며, 핀테크 기반의 금융혁신, 철저한 리스크 관리, 고객의 편의와 혜택을 극대화 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와 상품을 선보여 꾸준한 거래 고객 증가를 이어왔다. SBI저축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더 많은 분들이 SBI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1.13 당행 거래자 수 기준 1,004,712명 (전산자료)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 및 성금 1억원 기부**



SBI저축은행이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된 성금 1억 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의 아동 및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이와 함께 고객 중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대구-경북 지역의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대출 고객에게는 만기연장, 원리금상환 및 채권 추심 유예, 연체이자 감면 등을, 수신 고객은 금융수수료 면제, 만기 후 1개월 간 약정이율 적용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SBI저축은행은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보탬이 되기 위해 성금 및 금융지원을 결정했다”며 “피해를 입은 지역과 고객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BI저축은행-하나은행,
해외 송금 사업 위한
MOU 체결**



SBI저축은행이 해외 송금 사업 진출을 위해 하나은행과 MOU를 맺었다. 지난 2월 하나은행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는 유현국 SBI저축은행 리테일영업본부장, 조종형 하나은행 외환사업단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SBI저축은행은 하나은행의 외환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해외 송금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BI저축은행은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외송금 사업 진출을 기획하게 되었다. 하나은행과의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고객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BI저축은행
2020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저축은행 브랜드가치 1위 선정**



SBI저축은행이 브랜드스타이 조사 평가한 ‘2020 대한민국 브랜드스타’에서 저축은행 부문 브랜드가치 1위에 뽑혔다.

SBI저축은행은 업계 자산규모 1위(자산기준, 2019.09 경영공시)의 기업으로 작년 6월에 사이다뱅크, 시가반 상품 출시 등을 통해 핀테크 기반의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고 있다. 그리고 <저축가요>, <은행저축 프로젝트> 등 다양한 기업PR캠페인 활동으로 대중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5년 연속 저축은행 업계 1위의 브랜드스타에 선정되었다.

브랜드스타는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가 클수록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기업들은 평소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SBI 체험현장」 참가 신청 가족, 동료, 연인, 친구 등과 함께 참여하는 액티비티에 도전해 보세요. 멋진 사진으로 추억을 남겨드리고 참여하신 분께 백화점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SBI pick's」 설문 참여 임직원 여러분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콘텐츠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임직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인생레시피」 추천 맛집 <희망+>에 아이디어 제안을 해주시는분들 중 2명을 선정하여 <인생레시피>에 소개된 '공일 부엌'과 '더하우스1932'의 맛집 식사권을 드립니다.

SBI 저축은행 매거진 <희망+>는 임직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두 귀를 쫓긋 세웁니다. 홍보부 유형근 주임 (koomtle@sbisb.co.kr)에게 의견을 보내주세요.

편집후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많은 공간과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가득 찼던 공간에는 한숨만이 남았고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생겼습니다. 금방 찾아들 줄 알았던 바이러스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불안함으로 물들어놓았습니다.

이번 사보 제작에서도 코로나19는 변수였습니다. 직원들이 참여하는 코너를 최소화하느라 기획안을 전면 수정하였고 분산근무중인 인프라서비스부 촬영은 세번에 나누어서 그리고 합성작업을 거쳐서야 최종 완성되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체험도 참가자를 '가족'으로 한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코로나19는 저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주말 저녁에 치맥을 하며 EPL을 보는 저만의 소중한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관지가 좋지 않아 기침을 자주하는데 요즘 지하철에서 기침했다간 세상 따가운 시선을 마주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셜커머스에 중독되었다는 거예요... 마트를 가는 대신 쿠팡에 접속했다가 음식, 옷, 전자기기 등으로 장바구니를 꽉 채워버렸죠. 그저 라면 하나 사려고 했는데... 쇼핑 중독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모로 참 인짱은 바이러스입니다.

요즘에는 평범하게 주어졌던 일상이 그립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거리를 거닐고 친구들과 모여서 수다를 떨고, 또 사람들과 몸을 부대끼며 운동하던 그 모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다시 길거리가 사람들로 북적이고 만나면 반갑다고 악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하루 빨리 찾아오길

홍보부 유형근 주임

다른 그림 찾기

두 사진에서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1. 서로 다른 곳을 찾아 사진에 표시한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세요.
2. 6월 20일(수)까지 홍보부 유형근 주임(koomtle@sbisb.co.kr)에게 답을 보내 주세요.
3. 정답을 보내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다섯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